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

조진만 | 인하대학교**

윤종빈 | 명지대학교***

가상준 | 단국대학교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 선거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비슷한 수준의 정치관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양산하게 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관용은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도 승자 또는 패자로서의 지위는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있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정치가 파행적인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화와 토론에 기반하여 협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 간에 존재하는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좀더 합의제적인 방향으로 제도 설정을 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관용, 갈등, 승자, 패자, 한국, 선거, 민주주의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B00011).

**주저자

***교신저자

I. 서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적·제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들에서 한국은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배우고 본받기 위한 제3세계 국가들의 관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명실상부 한국은 대외적으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내적인 평가는 비판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적 평판과 내부적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인 평가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처방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정치를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들을 주위 깊게 청취해보면 어렵지 않게 하나의 일관된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정치권이 싸움박질만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라는 것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권력 획득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갈등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치열하게 표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이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절한 갈등과 선의의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파행적으로 대립하고 반목만 할 뿐 사회적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신뢰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과 행태로 인하여 시민사회에서도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갈등들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영역 모두에서 주요 사회쟁점들에 대한 갈등과 반목만 존재할 뿐 대화와 합의의 노력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정치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성숙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치에 요구되는 중요한 민주적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관용(*tolerance*)이다. 즉 서로 다른 선호나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하지 않고 기꺼이 허용하며, 경청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사회적 갈등들은 적법하고 유연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관용이 부족할 경우 서로 다른 선호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집단, 정치인들은 갈등을 대화와 토론에 기반하여 협의하기보다는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충돌까지를 염두한 선택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정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용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치관용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관용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선거결과로 초래되는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끌고, 개인의 정치관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관용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관용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치관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기제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 선거는 필연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차원의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게 된다. 먼저 정치권력의 획득 여부를 기준으로 정치권이 승자와 패자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유권자 수준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한 정당(정치인)을 지지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승

자와 패자가 구분된다. 그리고 특정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과 유권자가 부여받게 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이후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기의 정치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의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는 선거를 통하여 승자와 패자의 지위가 항상 변화될 가능성, 다시 말해 정권 교체的可能性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Huntington 1991; Przeworski 1995). 이것은 선거를 통한 승자와 패자의 지위가 항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는 선거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비슷한 수준의 정치관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승자와 패자가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유일한 게임으로 인정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수용할 때 양자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관용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성숙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Gunther et al. 1995; Linz 1990; Linz and Stepan 1996).

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통하여 결정된 승자와 패자가 어떠한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민주주의의 실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승자와 패자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Kim and Racheter 1973; Kingdon 1967), 정치권위에 대한 인식(Kaase and Nowton 1995; Nadeau and Blais 1993),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Lambert et al. 1986), 민주주의 만족도(Anderson and Tverdova 2001; Christopher and Guillory 1997), 정치적 신뢰와 지지(Citrin and Green 1986; Kornberg and Clarke 1992; Norris 1999)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특정 선거 이후의 정치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유권자 차원에서 결정된 승자와 패자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거나 실패한 정당(정치인) 모두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치과정상에서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승자와 패자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단 선거를 통하여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은 자신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 다수의 지지, 즉 정책적 위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McDonald and Mendés 2005). 그러므로 선거 이후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은 자신이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가급적 원안에 가깝게, 그리고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견고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유권자들 역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이 지지한 정당(정치인)이 신속 정확하게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반영해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에서 승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경우 패자를 선택한 유권자와 비교하여 정부가 자신의 선호와 요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인다(Christopher and Guillory 1997, 68).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하여 승자는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Lambert et al. 1986; Nadeau and Blais 1993),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패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Anderson and Tverdova 2001; Christopher and Guillory 1997; Citrin and Green 1986; Kornberg and Clarke 1992; Norris 1999). 다시 말해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한 정당(정치인)이 승자적 지위—주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과 유권자의 연계를 고려할 때 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와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타자—실질적으로 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받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과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관용적인 자세로 패자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것은 정치적 결정과정에서의 거래비용만을 증대시킬 뿐 자신의 정치적 이익들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승자의 관점에서는 패자의 입장이나 주장이 자신의 선호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상충하거나 심지어 위협적일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패자의 정치적 활동과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에 인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과 유권자들은 패자의 지위를 확보한 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관용의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일 수 있다.

한편 패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정치인)과 유권자는 이처럼 승자들이 비관용적인 태도

로 정치과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지배하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정치과정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즉 패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호와 이해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승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고 실현하려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패자는 승자가 선거를 통하여 모든 공약들에 대한 정책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승자가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패자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전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패자는 비제도적인 수단들 까지도 동원하여 승자가 자신의 의사를 수월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패자는 승자의 비관용적 태도가 민주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승자가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패자의 경우 정치권력을 획득하는데 실패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패자의 지위를 갖게 된 정당(정치인)과 유권자는 승자의 지위를 확보한 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관용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의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선거를 통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들이 어떠한 정치적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선거를 통하여 결정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정치관용 수준의 차이를 이끌어 양자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성숙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 간에 서로간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비슷한 수준의 정치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과 유권자 차원으로 구분되는 승자와 패자 간의 연계를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유권자 수준의 패자와 승자 간에 존재하는 정치관용 수준의 차이가 정치적 대리자인 정당(정치인)을 통하여 갈등적으로 발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 수준의 패자와 승자 간에 정치관용 수준이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치권이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비관용적이고 갈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전자의 특성을 보인다면 유권자 수준에서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후자의 특성을 보인다면 정치권의 비관용적이고 갈등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적실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인)과 유권자 각각의 수준에서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정당(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성향과 요구들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유권자 수준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은 한국정치가 비관용적이고 파행적인 특징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인)들이 비관용적이고 갈등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이유가 정치권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데이터, 연구모델, 조작화

본 연구는 유권자 차원에서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끄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실시한 “한국사회 관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¹⁾ 이 설문 조사는 관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논의들을 고려하여 최초로 한국사회의 정치관

1) 이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의 표집방법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이 사용되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pm 3.1\%$ 였다. 설문조사는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용 수준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즉 이 설문조사자료의 경우 정치관용의 수준을 적실성 있게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설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경우 앞서 전개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여 두 가지 차원의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의 대한 인식 차이를 이끄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치관용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설문항들을 조합하여 지수의 형태로 조작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자와 패자 집단의 정치관용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해보면 양 집단 간 정치관용의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적실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이념, 교육 수준, 소득 수준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은 기존 연구에서 정치관용에 중요한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로 간주되는 동시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Bobo and Licari 1989; Nunn et al. 1978; Stouffer 1955; Sullivan et al. 1981).

$$\text{모델: 정치관용} = a + \beta_1 * \text{승자/패자} + \beta_2 * \text{성별} + \beta_3 * \text{연령} + \beta_4 * \text{이념} + \beta_5 * \text{교육 수준} \\ + \beta_6 * \text{소득 수준} + e$$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을 어떻게 조작화하였는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치관용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호감 또는 반감이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리반과 그의 동료학자들의 지적(Sullivan et al. 1979)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조작화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사회의 균열요인들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선택된 집단들에 대한 개인들의 호감도를 파악하여 이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하여 이렇게 선별된 가장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제약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를 질문한 설문들을 조합하여 정치관용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용은 자신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집단에 대하여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는 용의(Sullivan et al. 1979) 내지는 정치적 의견이 위협하고 적대적이라도 이를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Nie et al. 1996)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관용은 이해관계와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들도 민주주의 하에서는 동등하게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의 권리 행사의 일부분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치관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 수준의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Gibson 2006)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관용 측정방식(*least-liked measurement strategy*)은 정치관용이 서로 다른 선호나 이해관계를 가진,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서 위협하고 적대적일 수도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권리를 금지하지 않고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 용의 내지는 의사를 의미한다(Gibson and Bingham 1982; Sullivan et al. 1979)는 개념적 정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이 측정방식은 현재 정치관용을 가장 적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아 관련 연구들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Gibson 1988, 2008; Gibson and Bingham 1982; Sullivan et al. 1979, 1981, 1982).²⁾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정치관용을 조작화한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설문조사자가 자본과 노동, 진보와 보수, 지역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차원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정된 민주노동, 전경련, 전교조, 뉴라이트, 참여연대, 반미세력, 반공세력,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특별시/경기도 사람, 외국인 노동자의 11개의 집단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도록 한 설문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 연구

2) 정치관용에 대한 초기 연구의 경우 사전에 연구자가 설정해놓은 특정 집단—주로 좌파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정치관용 수준을 측정하였다(Stouffer 1955).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관용을 측정할 경우 그것이 정확히 정치관용의 수준만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Sullivan et al. 1981, 92-94).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설문조사자들에게 사회주의자가 노동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게 된다면 그 응답은 정치관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에 대한 선호 내지는 감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관용 측정지표로 활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다.

들에서 정치관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설문들, 구체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 일일교사)를 하는 것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싫어하는 집단에 대하여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핸드폰 도청)과 (공직 출마 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싫어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의 직책을 수행해도 괜찮다”라고 질문한 각각의 설문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관용을 조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의 경우 (공공연설), (가두행진), (학교 일일교사),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과 관련된 설문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할수록 정치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동의함 = 4”, “다소 동의함 = 3”, “별로 동의 안 함 = 2”, “전혀 동의 안 함 = 1”로 코딩하였다. 반면 (핸드폰 도청)과 (공직 출마 금지)와 관련된 설문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수록 정치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동의 안 함 = 4”, “별로 동의 안 함 = 3”, “다소 동의함 = 2”, “매우 동의함 = 1”로 코딩하였다. 그런 다음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이 8개의 설문들을 조합하여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정치관용을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치관용 변수는 최소값 8점에서 최대값 32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수치가 클수록 정치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조작화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승자/패자 변수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였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토대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승자 = 1”로, 그리고 패배한 기타 후보자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패자 = 0”으로 코딩하였다.³⁾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선거에서의 유권자 선택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자료상에서 이를 조작화할 수 있는 설문은 이것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통령선거의 경우 의회선거와 비교하여 승자와 패자의 지위에 대한 인지성이 높은 특징을 보

3) 본 연구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였거나 투표한 후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유권자의 경우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을 고려할 때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다는 것이다(Sartori 1994; Shugart and Carey 1992). 단 한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의회선거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때 대통령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들 중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고, 선거결과도 당선자 한 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의회선거의 경우 지역구 차원의 후보자투표 결과⁴⁾와 선거 이후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의회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인식은 다층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구 차원의 후보자투표에서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가 승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인식은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대통령과 대통령선거의 정치적 비중과 책임성이 크다는 것이다(Kernell 1977; Pierson 1975).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삼권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권력의 크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의회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를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실질적인 정국의 운영과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집합적인 기구인 의회보다는 개인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성 논란과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인식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을 기준으로 더욱 강력하게 유지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통제의 목적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 = 0”과 “여성 =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유권자의 만 연령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념의 경우 정치관용과 관련하여 비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념이 좌파(진보)에서 우파(보수)로 갈수록 정치관용이 높은 선형적 특징을 보이기보다는 중도를 기준으로 좀더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의 특징을 보일수록 정치관용은 낮은 비선형적 특징을 보인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권자 이념의 중간값인 5점을 기준(0점)으로 이로

4) 한국과 같이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역구 차원의 후보자투표의 결과와 더불어 전국적 차원의 정당투표의 결과도 고려되기 때문에 의회선거를 토대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간과하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경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부터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로 갈수록 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념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이념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중도로부터 멀어지고,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 1”, “고졸 = 2”, “전문대졸/대재 = 3”, “대졸 = 4”, “대학원 재학 이상 = 5”로 코딩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보너스 포함)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 1”, “100~149만원 = 2”, “150~199만원 = 3”, “200~249만원 = 4”, “250~299만원 = 5”, “300~349만원 = 6”, “350~399만원 = 7”, “400~449만원 = 8”, “450~499만원 = 9”, “500~549만원 = 10”, “549~600만원 = 11”, “600만원 이상 = 12”로 코딩하였다.

IV. 경험적 분석

다음의 <표 1>은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승자 집단의 정치관용 평균값은 17.56점으로, 그리고 패자 집단의 정치관용 평균값은 19.17점으로 나타나 양 집단 간에 정치관용 평균값이 1.61점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정치관용 평균값의 차이는 t-검정의 유의확률($p = 0.000$)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승자 집단과 패자 집단의 경우 정치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승자 집단이 패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관용의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승자와 패자 간에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승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선호와 요구가 신속 정확하게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표 1>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 차이 t-검정

평가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t값(t)	유의확률(p)
정치관용	승자	290	17.56	3.821	.000
	패자	213	19.17		

승자는 선거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한 정당(정치인)이 정치적 정통성과 정책적 위임성을 확보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나치게 관용적인 자세로 패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승자의 입장에서는 소수자인 패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배려보다는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선호와 요구가 반영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승자의 경우 정치관용이 낮은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반면 패자의 경우에는 승자가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즉 승자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선호와 이해관계가 다른 패자의 입장에서는 승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패자의 입장에서는 승자가 다수결 원칙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소수자인 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패자의 경우 정치관용이 높은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가설적인 주장들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에 대한 승자와 패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다수결 원칙에 대한 승자와 패자 간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수자의 보호보다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한 유권자와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권자의 다수결 원칙에 대한 평가가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일단 소수자의 보호보다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78.0%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

<표 2> 승자와 패자의 다수결 원칙 평가 교차분석

	승자/패자	승자	패자
다수결 원칙 평가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중요		314	180
소수자 보호가 중요		66	73

※ $X^2 = 11.691, p < 0.01$

서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패자와 승자 집단의 구분을 통하여 교차분석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수자의 보호보다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데 동의한 유권자들 중 다수(63.6%)가 승자라는 점,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들 중 다수(52.5%)가 패자라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승자 집단의 경우 소수자의 보호보다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패자 집단의 경우에 동의한 비율이 7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⁵⁾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다수결 원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값과 유의확률($X^2 = 11.691, p < 0.0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첫째,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정치관용에 대한 승자와 패자 간의 인식 차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다수결 원칙에 대한 평가와 일정 수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은 양변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적실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델에 기반하

〈표 3〉 정치관용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β)	유의확률(p)
승자/패자	-.823	.485	-.087	.090
성별	.284	.462	.030	.539
연령	-.050	.019	-.142	.010
이념	-.369	.195	-.095	.060
교육 수준	-.011	.225	-.003	.961
소득 수준	-.011	.225	-.003	.961
상수	21.128	1.486		.000
F값	4.162 (p = .000)			
결정계수(R ²)	.059			
사례수(N)	406			

5) 동일한 차원에서 소수자의 보호보다 다수결 원칙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승자 집단에서는 17.4%, 그리고 패자 집단에서는 28.9%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정치관용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⁶⁾ 일단 분산분석의 결과인 F값의 통계적 유의미성($F = 4.162, p = .000$)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유권자의 정치관용 수준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통제의 목적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유의확률(p) 0.05 이하 수준에서 정치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연령이 유일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승자/패자의 변수와 이념의 변수가 유의확률($p < 0.1$)을 고려할 때 정치관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의 독립변수인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은 정치관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 젊은 유권자일수록, 패자의 지위를 획득한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중도적인 성향의 이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정치관용의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젊은 유권자일수록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자유롭고 계몽된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이 많고, 자신이 지키고 고수해야 할 기득권도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Abramson and Inglehart 1992). 뿐만 아니라 젊을수록 혐오집단과 접촉하고 관계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Sullivan et al. 1981).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일수록 정치관용이 높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도 정치관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념 변수가 일정 수준 정치관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념과 정치관용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다시 말해 정치관용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이념 자체보다는 이념의 강도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관점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밖에 통제의 목적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한 정치관용의 수준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큰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정치관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되

6) 본 연구에서 다중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모든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차한계(Tolerance)의 값이 0.3 이하인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의 값도 모든 독립변수들이 15보다 작게 나와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립변수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교육 변수(Bobo and Licari 1989; Jackson 1978; Nunn et al. 1978; Stouffer 1955)가 본 연구의 결과 정치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으로 향후 좀더 면밀한 논의와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관용도 높은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시민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통하여 타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경우 교육 수준은 민주시민의식이나 정치관용과 연계된 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학력을 획득하게 되는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이 민주시민의식이나 정치관용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 수준 역시 정치관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경험과 생활을 여유를 토대로 이질적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Sullivan et al. 1982). 하지만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상관성이 외국과 같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경쟁 역시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정치관용이 높지 않은 특징을 보였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승자/패자 변수가 정치관용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설정한 상태에서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관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확률($p < 0.1$)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당초 예상하였던 기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본 연구의 경우 승자/패자 변수를 코딩하는데 있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기권하였거나 투표한 후보를 모른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결측값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결측값으로 처리된 유권자의 비율이 34.7%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권자와 투표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를 기준변수로 포함시킨 후 승자 변수와 패자 변수를 각각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수행해보았다. 하지만 그 연구결과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⁷⁾

그렇다면 이밖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상황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설문조사 시점과 관련한 요인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직전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치관용 설문조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0년 7월에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2007년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권자들이 느끼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인식은 상당 부분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2010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적인 선거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시점 유권자가 느끼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인식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인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승자/패자의 변수가 정치관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V. 결론

정치관용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위협하고 적대적일 수 있는 타인의 정치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Gibson and Bingham 1982). 그리고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관용이 부족할 경우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있어 일정 수준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정치가 심각한 대립과 파행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은 일면 정치관용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치

7) 구체적으로 연구결과와 기관자와 비교하여 승자는 정치관용이 낮은 특징($\beta = -.035$)을, 그리고 패자는 정치관용이 높은 특징($\beta = .050$)을 보였다. 하지만 두 변수 모두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관용과 관련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들 집단 간의 정치관용 문제가 실제 정치과정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경험적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 간에는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차이는 승자와 패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상이한 차원에서 다수결 원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일정 수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설정하여 수행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는 정치관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부수적으로 연령과 이념이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경험과 달리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왜 한국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정치관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 시점의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개인의 정치관용 수준을 결정짓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적인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의 결정을 놓고 승자(다수)는 “소수가 횡포를 부린다”는, 그리고 패자(소수)는 “다수가 독주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며 비관용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인다. 이것은 한국에서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향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정치관용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문제이고, 민주시민의식과 일맥상통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식이 대부분 형성되는 유년 시기에 관련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정당,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노력과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한국에서 교육 수준이 정치관용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치관용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다수결적인 방식보다는 합의적인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Aarts and Thomassen 2008; Christopher and Guillory 1997; Lijphart 1999; 1984; Nadeau and Blais 1993; Norris 1999; Przeworski et al. 2001). 즉 승자와 패자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 차이는 승자 독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기본적으로 다수의 효율적인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다수결제하에서보다 소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제하에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도 다수결제적인 처방보다는 합의제적인 처방에 기반하여 접근할 때 좁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승자에 집중되는 정치권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가 용이한 선거제도의 개혁, 원내교섭단체 기준의 완화와 특권 감소, 국회 내 소수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의사진행방해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다. 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패자에게 일정 수준 양보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정책 결정의 내용은 자신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패자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결정들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승자와 패자 모두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상호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더욱 좋은 정치적 결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투고일 2011년 3월 7일

심사일 2011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16일

참고문헌

- Aarts, Kees and Jacques Thomassen. 2008. "Satisfaction with Democracy: Do Institutions Matter?" *Electoral Studies* 27, 5-18.
- Abramson, Paul R. and Ronald Inglehart. 1992.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Value Change in Eight West European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2), 183-228.
- Anderson, Christopher J. and Christine A. Guillory. 1997. "Polit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onsensus and Majoritarian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1, 66-81.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1. "Winners, Losers,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No. 4, 321-338.
- Bobo, Lawrence and Frederick C. Licari. 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Testing the Effect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and Target Group Affe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 285-308.
- Citrin, Jack and Donald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No. 4, 431-453.
- Gibson, James L. 1988. "Political Intolerance and Political Repression during the McCarthy Red Sca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6. No. 2, 560-577.
- _____. 2006. "Enigmas of Intolerance: Fifty Years after Stouffer's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c Liberties." *Perspectives on Politics* 4. No. 1, 21-34.
- _____. 2008. "Intolerance and Political R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 Half Century after McCarthy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 No. 1, 96-108.
- Gibson, James L. and Richard D. Bingham. 1982.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olitical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No. 3, 603-620.
- Gunther, Richard, Hans-Jurgen Puhle, and P. Nikiforos Diamandourous. 1995.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kson, Mary R. 1978. "General and Applied Tolerance: Does Education Increase Commitment to Racial Integ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No. 2, 302-324.

- Kaase, Max and Kenneth Newton. 1995. *Beliefs in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No. 1, 44-66.
- Kim, Chong Lim and Donald P. Racheter. 1973. "Candidates' Perception of Voter Competence: A Comparison of Winning and Losing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 No. 3, 906-913.
- Kingdon, John W. 1967. "Politicians' Beliefs about Vot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No. 1, 137-145.
- Komberg, Allan and Harold D. Clarke. 1992. *Citizens and Community: Political Support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ert, Robert D., James E. Curtis, Steven D. Brown, and Barry I. Kay. 1986. "Effects of Identification with Governing Parties on Feelings of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No. 4, 705-728.
- Lijphart, Arend. 1984.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1990. "Transitions to Democracy." *The Washington Quarterly* 13. No. 3, 143-164.
- Linz, Juan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cDonald, Michael and Silvia M. Mendés. 2005. *Elections, Parties, Democracy: Conferring the Median Mand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deau, Richard and André Blais. 1993. "Accepting the Election Outcom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n Losers' Cons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No. 4, 553-563.
- Nie, Norman H., Jane Junn, and Kenneth Stehlik-Barry.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ris, Pippa. 1999. "Institutional Explanation for Political Support."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n, Clyde A., Harry J. Crockett, and Allen J. Williams. 1978. *Tolerance for Nonconform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Pierson, James.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No. 4, 683-694.
- Przeworski, Adam. 1995. *Sustainable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Michael E. Alvarez, and Jose A. Cheibub. 2001. "What Makes Democracies Endure?"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The Global Divergence of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94.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hugart, Matthew Soberg and John M. Carey.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uffer, Samuel. 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c Liberties*. New York: Doubleday.
- Stricker, G. 1964. "The Operation of Cognitive Dissonance on Pre- and Post-Election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3, 111-119.
- Sullivan, John L., George E. Marcus, Stanley Feldman, and James E. Piereson.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No. 1, 92-106.
- Sullivan, John L., James E. Piereson, and George E. Morcus. 1979.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Tolerance: Illusory Increases, 1950s~197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No. 3, 781-794.
- _____.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The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and Its Effects

Jinman Cho | Inha University

Jong Bin Yoon | Myungji University

Sangjoon Ka | Dankook University

Sung-jin Yoo |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e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its effects in Korean politics. In this vein,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tolerance as well as to suggest what kinds of approaches or efforts are needed for improving the level of it in Korea.

Depending on the statistic analyses, we can witness that a significant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does exist in Korea. Also, it effects to determine the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of the individuals. Considering the empirical findings, reducing the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is necessary to ameliorate the winner-takes-all culture as well as to adopt the more consensual institutions.

Keywords: political tolerance, conflicts, winner, loser, Korea, election, democracy